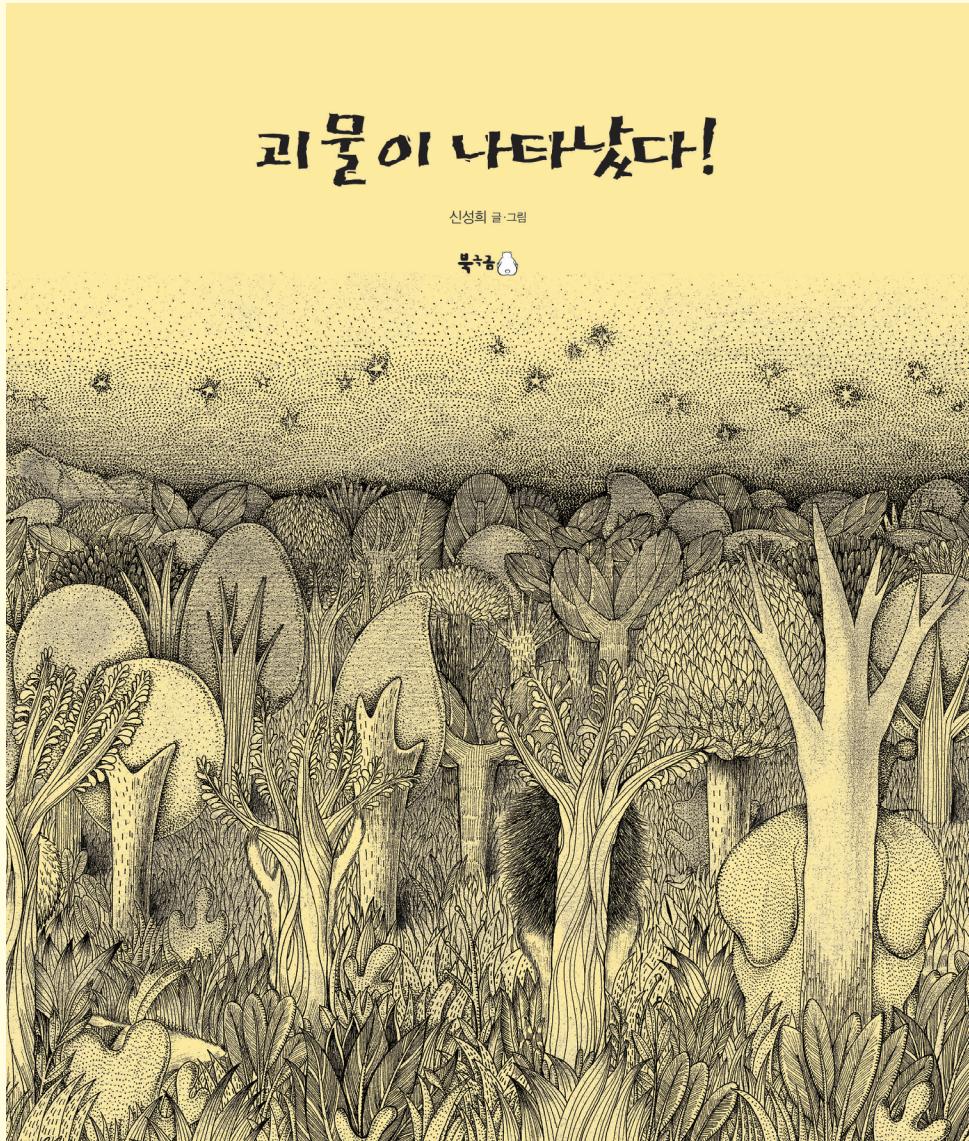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이 나타났다!

신성희 글·그림



신성희 글·그림 | 북극곰

#소문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가짜뉴스 #미디어리터러시 #자기중심적사고 #문해력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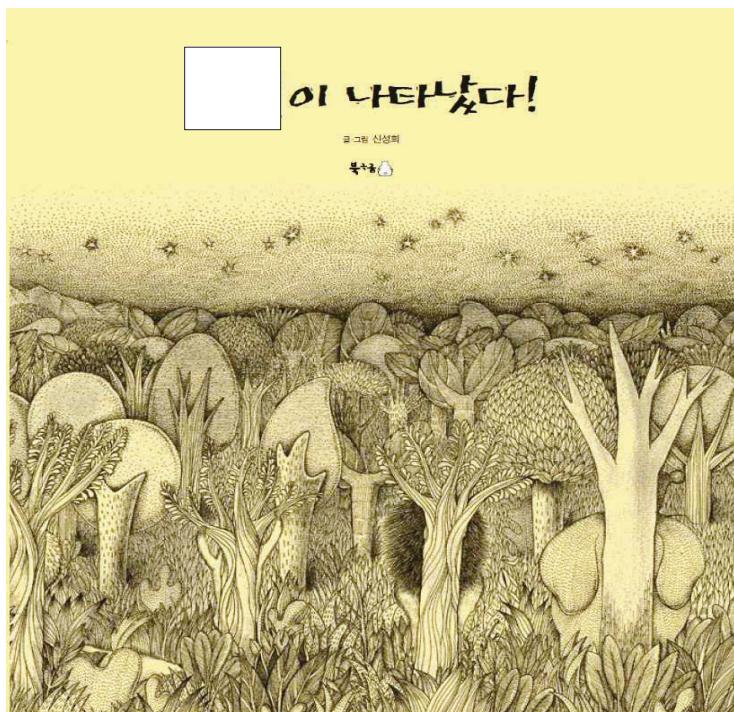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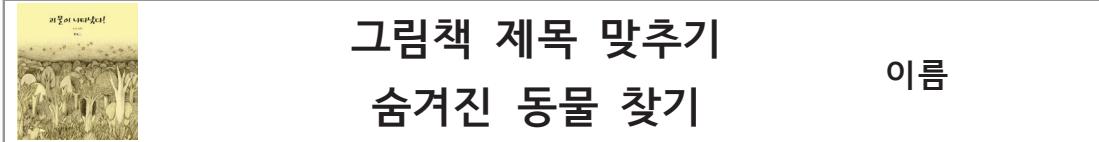
학년

반

번

이름

<활동지1>



1.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2. 표지에 숨어 있는 동물들을 찾아봅시다.

<활동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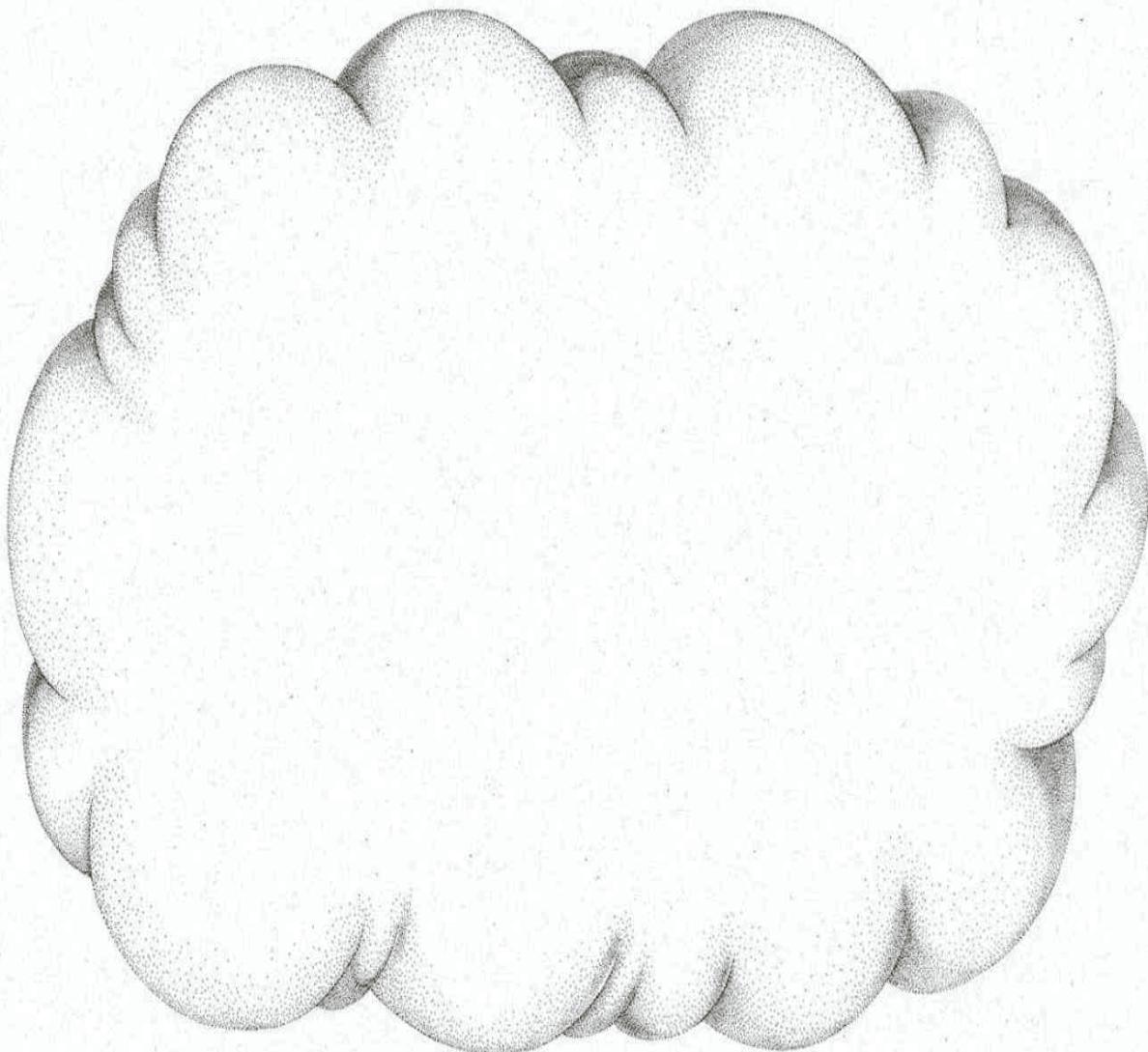


나만의 괴물 그리기

이름

이 그림책은 '목이 길고 등이 굽은 이상한 동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림책을 읽기 전에 이 동물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하며 그려 봅시다.



그림을 다 그렸다면 다른 친구들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왜 '목이 길고 등이 굽은 이상한 동물'의 모양이 서로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지3>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 살펴보기 이름

■ 그림책 속의 문장들입니다. 문장이 나왔던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봅시다.

그림책 속 문장	순서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있고 뿔이 난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있고 뿔이 나오고 꼬리가 길고 덩치가 큰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목이 길고 등이 굽은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있고 뿔이 나오고 꼬리가 긴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난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괴물이 나타났다!	

[모둠별 토의]

1. 왜 동물들마다 말이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유를 찾아봅시다.

2.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활동지4>



미디어 리터러시 알기

이름

1.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질문	O / X
인터넷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는 모두 사실이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	
뉴스는 신문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도될 수 있다.	
인터넷 기사의 출처를 살펴보고 의심하며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제목만 확인해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가짜뉴스라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검색하여 사실을 파악해 본다.	

2. 미디어 리터러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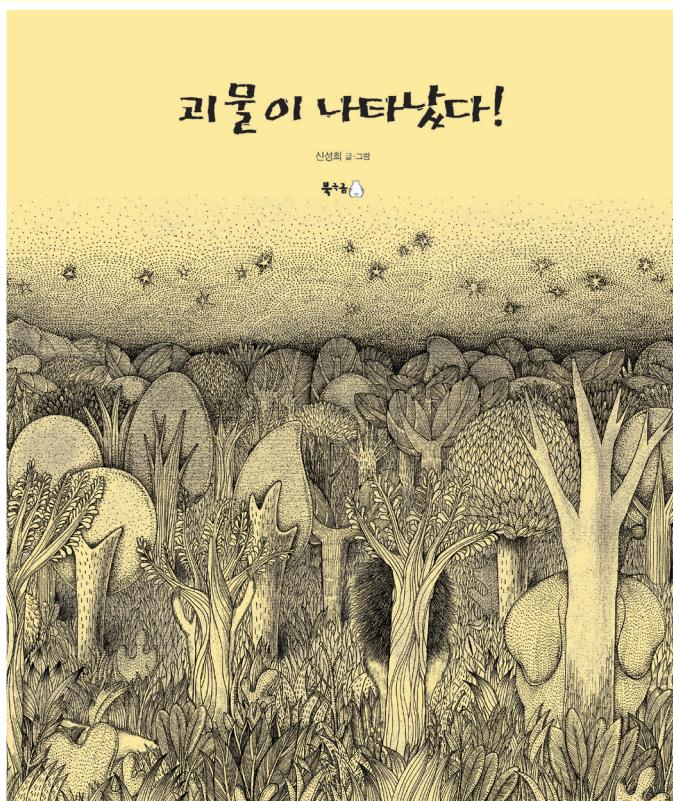
미디어(Media) +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 미디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다음 기사를 읽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2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SBC 뉴스] 단독 보도 마늘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세계보건건강기구(WHOH)가 2022년 1월 4일 유명한 사이언스지를 통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늘은 건강식품이며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마늘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에 마늘을 넣은 요리가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10-06 SBC기자 ohhkipper@sbc.com	
---	--

괴물이 나타났다!



신성희 글·그림 | 북극곰

#소문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가짜뉴스

#미디어리터러시

#자기중심적사고 #문해력

주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여러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읽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교육 과정 연계 도덕	국어 [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6국03~04]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작성자	서울 월곡초등학교 남진희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제공)

소문이 만들어 내는 오해와 상상의 재미를 유머와 재치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처음에 생쥐가 본 동물은 단지 ‘목이 길고 등이 굽은 이상한 동물’이었지만, 이 동물은 고슴도치의 상상 속에서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난 이상한 동물’이 된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동물들의 상상이 하나씩 보태져서 마침내 사자의 상상 속에서 그 이상한 동물은 괴물이 되고 만다. 처음에 들은 이야기에 각자의 경험과 상상력을 더해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반전을 보고 어떤 독자들은 깔깔깔 웃다가 심각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소문의 와전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이 책을 읽고 웃다가 언젠가 문득 이 책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 학습 목표

-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사람들마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안다.
- 사건이나 사물을 탐구할 때 자신의 의견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알고 비판적 관점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소문이나 오해, 왜곡과 관련된 경험에 관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수업 준비

이 그림책에서 ‘목이 길고 등이 굽은 이상한 동물’은 각 동물의 주관적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왜곡된다.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하여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왜곡되어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사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 진정 사실인지 구별해 보고, 왜 사람들마다 정보를 인식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과거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 제한된 언론 기관이 생산한 뉴스를 제공받았으나, 최근에는 각종 SNS 등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가 많아지게 되었고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전달하려는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며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창조해내는 능력으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학생들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거짓과 진실을 가리며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소문 또는 가짜 뉴스를 통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그림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읽는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수업 준비물

활동지, 다양한 색깔의 사인펜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말 전달하기 놀이하기	
	표지 살펴보기	1
	괴물 그리기	
읽는 중	내용 파악하기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하기	1
읽은 후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 살펴보기	1
	미디어 리터러시 알기	2

읽기 전

1. 말 전달하기 놀이하기

■ 놀이하기

- 4~6명을 한 팀이 되어 한 줄로 섭니다. 앞 사람에게 전달할 말이 적힌 종이를 보여줍니다. 그 문장을 다음 친구에게 컷속말로 전달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그 문장을 소리 내어 발표하고, 종이에 적힌 말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예시문장)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시에 뱅뱅이 놀이터에서 만나자.

- 처음 전달한 사람과 마지막 사람의 말이 다른 경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예) 중간에 말을 덧붙였어요.

전하려고 했던 말을 깜박 잊어서 생략하고 말한 것 같아요.

2. 표지 살펴보기 <활동지1 참고>

■ 제목 예상하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입니다. 표지를 살펴보고 □안에 들어갈 말을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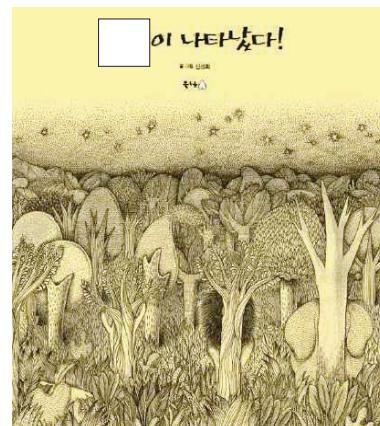
예) 나무, 동물, 하늘, 상자, 코끼리, 어둠 등

- 어떤 동물들이 보이나요?

예) 코끼리, 사자, 원숭이, 염소 등

- 동물들은 무엇을 하는 것 같나요?

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숨어 있는 느낌이에요,

- 왜 숨어 있을까요?

예) 무서운 것이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요, 여기 들어갈 그림책의 제목은 '괴물'이에요.

- 제목이 '괴물이 나타났다!'인데,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 같나요?

예) '괴물이 나타났다'라는 제목을 들으니까 동물들이 사는 곳에 괴물이 나타나서 도망가는 내용일 것 같아요. 괴물을 물리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서 색깔을 다 훔치는 것 같아요. 그림이 흑백이라서, 색깔을 훔쳐 가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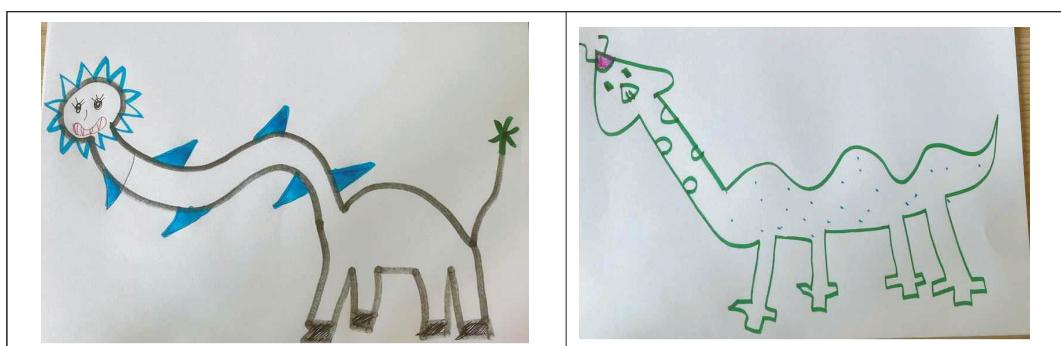
3. 괴물 그리기 <활동지2 참고>

■ 책 속 괴물 상상하여 그려 보기

- 책에 나오는 '목이 길고 등이 굽은 이상한 동물'을 미리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 면지를 살펴보면 큰 말풍선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는 활동지와 같은 그림이에요. 그림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서 나오는 괴물의 특징인 '목이 길고 등이 굽은 이상한 동물'을 자유롭게, 어떤 괴물이 나올지 상상하며 그려 보세요.

예)



- 서로의 괴물을 보며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예) 목이 길고 등이 굽었다는 점만 같고 다 달라요. 눈이 다르게 생겼어요.

- 어떤 괴물이 나올지 기대하며 그림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ip. 그림책을 읽기 전에 괴물 그리는 활동을 하는 이유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각각 다른 괴물을 그리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읽는 중

1. 내용 파악하기

■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이 책에 나오는 괴물은 누구였나요?

예) 거북이

- 그림책을 읽기 전에 그렸던 여러분의 괴물과 비슷한가요?

예) 거북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 과연 거북이가 괴물일까요?

예) 거북이는 괴물이 아니라 동물 친구였어요.

- 동물들은 왜 거북이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예) 자기 모습에 목이 길고 등이 굽은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 등장인물이 되어 생각해보기

- 꼼짝도 않고 괴물이 지나가길 바라며 서 있었던 동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불안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돌아서서 괴물의 정체를 알고 싶었을 것 같아요.

- 동물들이 거북이가 괴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무서워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괴물이라고 벌벌 떨었던 것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거북에게 달려가서 진짜 괴물인지 아닌지 확인했을 것 같아요.

- 자신을 괴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내가 왜 괴물이야? 하고 말하면서 황당해할 것 같아요.

나를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면 웃길 것 같아요.

- 왜 동물들은 각각 괴물의 모습을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예)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상상했어요.

- 괴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어떤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요?

예) 처음 괴물이라고 말했던 생쥐에게 “그거 진짜야?”라고 물었어야 했어요.

“네가 직접 봤어? 어디서 봤어?”라고 확인해야 해요.

■ 이어질 이야기 상상하기

- 괴물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예) 괴물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도망 다닐 것 같아요.

거북이를 만나서 친구들이 괴물에 대해 알려주고 계속 괴물의 정체를 모르고 무서워하면서 살 것 같아요.

2.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하기

■ 소감 나누기

- 그림책을 읽고 알게 된 것, 인상적인 장면,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거북이 지나가는데 동물들이 가만히 숨어 있던 것이 웃겨요. 저 같으면 돌아보고 거북이잖아. 하고서는 같이 놀았을 것 같아요.

읽은 후

1.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 살펴보기 <활동지3 참고>

■ 소문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많아요. 친구들끼리 소문을 전달하기도 해요.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서 소문으로 전해지기도 해요.

- 그 소문은 사실이었나요?

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예) 그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줬어요.

cctv 같은 걸 확인했는데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증거가 부족해서 소문이구나 했었던 적도 있어요.

-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를 전달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 친구들을 놀릴 때 해 본 적이 있어요. 누구랑 누가 사귄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친구들 반응은 어떠했나요?

예) 그대로 믿는 친구도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는 친구도 있었어요.

- 소문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예)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제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친구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엄청 혼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소문은 잘못 내면 피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 살펴보기 <활동지3 참고>

- 소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 그림책에서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활동지를 통해 살펴봅시다.

【참고】 <활동지3 정답>

그림책 속 문장	순서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있고 뿔이 난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③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있고 뿔이 나고 꼬리가 길고 덩치가 큰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⑤
목이 길고 등이 굽은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①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있고 뿔이 나고 꼬리가 긴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④
목이 길고 등이 굽고 가시가 난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②
괴물이 나타났다!	⑥

■ 모둠별로 모여 활동지의 질문에 관해 토의하여 봅시다.

- 왜 동물들마다 말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결 지어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신의 경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본 것인지 들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 직접 보았나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증거가 있나요?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2. 미디어 리터러시 알기 <활동지4 참고>

■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알기

-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가짜뉴스 같은 것을 믿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만들 때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 같아요.

-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참고】 <활동지4 정답>

질문	O / X
인터넷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는 모두 사실이다.	X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	O
뉴스는 신문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도될 수 있다.	O
인터넷 기사의 출처를 살펴보고 의심하며 읽지 않는 것이 좋다.	X
제목만 확인해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X
가짜뉴스라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검색하여 사실을 파악해 본다.	O

- 미디어(Media) +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 미디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유튜브, 네이버 인터넷, 온라인 신문,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질문하면서 읽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살펴봅니다.

의심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출처를 확인하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추론해 봅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해보거나 기자에게 연락해 봅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하며 읽습니다.

Tip. 학생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할 경우에는 교사가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확하게 차근차근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어 보기

- 이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질문을 2가지 이상 적어 봅시다.

예) SBC는 실제로 있는 신문사일까?

1월에 발표한 것인데 10월에 보도한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SBC 뉴스] 단독 보도 마늘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세계보건건강기구(WHOH)가 2022년 1월 4일 유명한 사이언스지를 통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늘은 건강식품이며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마늘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에 마늘을 넣은 요리가 유행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10-06 SBC기자 ohhkipper@sbc.com	예) 정말 단독 보도일까? 세계보건건강기구라는 곳이 진짜 있는 곳일까? 이 연구의 출처는 어디인가? 어떤 과학자가 연구한 것인가? 마늘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 마늘 요리를 많이 팔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	--

Tip. 학생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친구들이 그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놀이를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 활동 소감 나누기

- ‘괴물이 나타났다!’ 그림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예) 말을 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온라인에 나오는 말을 다 믿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에 휘말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에서 가짜를 찾아 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